

전북의 맛과 멋, 유튜브 타고 '세계 속으로'

조회수 300만 건 넘어... 모든 영상 영어로 제작·외국인 시선으로 전북의 맛과 멋 체험

전북국제교류센터가 전북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작한 유튜브(YouTube) 영상이 3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전북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영상에는 세계 곳곳에서 전북을 방문하고 싶다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어 전북도에 대한 해외 관광객들의 인식 개선 및 방문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제교류센터는 지난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파급력이 큰 유튜브를 활용하는 홍보 전략을 세웠다.

이러 유튜브 제작의 거장으로 알려진 미국의 비디오그래퍼 마크 윈

즈를 초청, 2주간 전북 각 시군을 돌며 영상을 제작했다. 마크 윈즈는 그동안 서울과 도쿄, 방콕 등 세계 주요 도시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왔으며, 각 도시별로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저명한 비디오그래퍼다.

총 14편으로 구성된 이 영상은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각 시군의 관광지와 음식을 외국인의 시선에서 직접 체험해 보면서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로 된 영상물에 영자막을 입히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영상이 영어로 제작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했다

점에서 맞춤형 국제 홍보 전략이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 조사에서 세계 78개국 4억 7,000만 명 정도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영어소통이 가능한 인구는 약 15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더 큰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영상을 접한 유튜브들은 댓글 등을 통해 'I want to go jeonbuk just for the food(음식 먹으러 전북을 방문하고 싶다)', 'Now I feel like making some Kimchi at home too. That was awesome video. How I wish I was there next to you Mark!!(영상을 보니 나도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어지네. 멋진 영상이었

어. 마크 네 옆에 같이 있으면 좋았을 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북도에 대한 해외 관광객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실제 방문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철 센터장은 "다변화된 홍보 매체나 방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홍보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한 타겟형 국제 홍보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는 홍보 방법을 발굴해 전북의 맛과 멋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2016 연차별 사업평가 전국 1위

"농생명과 연계 목표 설정·추진·연계전략 우수"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 전북의 삼각농정 구현과 농생명 분야 SW융합 산업의 허브 역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2016년 연차별 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농생명 SW분야의 R&D지원, 오픈네이처 랩 및 테스트베드 검증지원, 인력양성 및 창업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255억 원을 투자해 전북을 농생명 SW융합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 6월 사업시작 이후 현재 전북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도내 기업은 100여 개사에 이르며, 2016년도 주요성과로 신규고용 100명, 기업증가수 48개사, 창업기업수 18개사, 인력양성 교육생 477명, 특허 21개, 기술이전 3건, SW

등록 22건, 인증 7건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평가를 받은 2016년 연차 평가에서 평가단은 "정량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전북의 특화산업인 농생명과 연계해 목표 설정 및 추진, 세부사업 간 연계전략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전북도와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부는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7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통합사업설명회를 갖고,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SW산업의 융합이 좋은 성과를 보였다"며, "향후에도 양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김일재 행정부지사 노인일자리센터 방문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14일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를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와 함께 어르신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경제 분야에 노인 역할을 증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기회의 확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특색있고 다양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노인일자리센터는 어르신들의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해 구직정보를 제공,알선과 함께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직희망 어르신 483명이 민간 일자리에 취업했고, 올해는 500명의 취업이 목표이다.

또한, 전북도는 올해 517억원을 투입해 2만15,0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형 일자리 활동비가 22만원으로 10% 증가했는데 이는 20만원으로 고정됐던 활동비가 14년 만에 처음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용 기자



문재인 자문그룹 출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년의 힘 위원회'에 참석 공동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10년의 힘 위원회'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내각에 몸담았던 장·차관 60여명으로 구성된 문 전 대표 자문그룹이다.

'농기계 기업 장비활용 운영지원사업' 가시적 성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기업 장비활용 운영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역 농기계.건설기계 업체에서 발생하는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시험분석, 신뢰성평가 등의 애로 기술을 김제 소재 생기원 농기계신뢰

성평가센터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기술 지원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기술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농기계기업을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억2,000만원을 투자해 기술지원 53건, 기술지도.상담 136건, 기술정보제공 33건 등 총 222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기술지원을 생기원에 신청하면 기술 정보제공, 지도, 자문 등 단순기술지도의 경우 전문가 선정 후 긴급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등 고급기술지원의 경우 농기계신뢰성평가센터 인프라를 통해 현물 및 고도장비를 지원한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유역 하수도시설 확충에 2164억원 투자

전북도는 새만금유역에 2164억원을 투자해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편성액 2,094억원 대비 70억원이 증가된 수치로 정부의 하수도예산 감액정책에 대응해 전북도 및 새만금유역 지자체가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사업내역으로는 전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하수처리장 8개소, 군산 고군산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22개소, 하수관로 정비 21개소 등으로 하수도 기반시설 사업 총 73개소이다.

특히, 과거 침수피해가 큰 부안군 부안읍 일원(1.92km²)을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비 269억원을 확보했고, 전주시 노후하수관 교체사업 선정 등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도시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침수피해 발생우려지역, 공공수역 수질악화 우려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 재정적 기술적 중점지원을 통해 침수예방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도모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 군산 경포산 북, 2015년 부안 줄포에 이어 올해 부안읍이 세번째로 선정돼 161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수질개선과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2018년도 하수도 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예산 편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 공모 3월16일까지

전북도는 '생활 속 불편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다음달 16일까지 실시한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민 제안 전용 사이트인 '별별공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생활 속 규제 공모는 도민생활 속에

서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함이며, 도민이 규제개혁에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체험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제출된 도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도에서 법령 개정안 등 과제 보완을 지원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경선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